



## 일제침략기 결핵전문 요양병원 海州救世療養院의 설립과 운영 실태에 대한 고찰

日帝侵略期韓国最初の結核専門療養病院海州救世療養院の設立と運営実態に関する考察

---

저자 (Authors)	신동규
출처 (Source)	<a href="#">한일관계사연구 52</a> , 2015.12, 341–381 (41 pages) <a href="#">The Korea-Japan Historical Review 52</a> , 2015.12, 341–381 (41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일관계사학회</a> The Korea-Japan Historical Society
URL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78931">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78931</a>
APA Style	신동규 (2015). 일제침략기 결핵전문 요양병원 海州救世療養院의 설립과 운영 실태에 대한 고찰. <a href="#">한일관계사연구</a> , 52, 341–381.
이용정보 (Accessed)	동아대학교 58.239.118.194 2016/05/08 16:3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 일제침략기 결핵전문 요양병원

## 海州救世療養院의

### 설립과 운영 실태에 대한 고찰\*

신동규\*\*

####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 최초의 결핵전문 요양병원인 해주구세요양원의 건립과정과 시설의 규모, 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해주구세요양원의 설립에 관한 문제이다. 설립 구상은 감리교 선교의사인 셔우드 홀 박사가 17세 무렵이었던 1910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후 건축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홀 박사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는 1927년 6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감리교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해주구세요양원의 설립 승인을 얻었고, 1928년 3월에 건축 허가, 동년 4월 13일에 ‘결핵환자위생학교’의 기공식을 거쳐 5월에는 해주구세요양원의 건축이 착수되었으며, 개원식을 10월 28일에 개최하면서 해주구세요양원은 실질적인 결핵예방과 치료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둘째는 해주구세요양원의 상세한 시설 규모의 파악이다. 요양원은 해주부 남산의 중복에 송림이 울창한 왕신리 210번지에 건립되어 현재의 황해남도 해주시 남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1928년 3월 무렵에 건축을 시작한 아래로 본관 1동, 기숙사 5동, 입원병동(入院舍) 6개동, 예배당(로제타 교회당), 오락실, 부속농장 등이 있었다. 특히 농장의 규모는 요양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원의 설립 아래 꾸준히 확장되어 1940년까지는 대략 15만평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당시로선 결핵환자를 위한 최신식 기구, 즉 X광선(X-ray), 인공태양등·인공기흉기·전기치료기 등을 구비하고 있어 결핵전문요양병원으로서의 실질적 체계를 완비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는 요양원의 운영 실태를 통해 본 성과와 발전 및 조선총독부의 결핵대책과 관련된 사항이다. 당시 총독부의 보조금은 요양원 자체에서 조달한 모금이나 기부금보다 훨씬 미미한 액수였는데, 이를 볼 때, 총독부의 조선에 대한 결핵대책은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대응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요양원은 1933년까지의 의료성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꾸준한 성과와 발전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상황은 1936년 4월 7일 조선총독부가 朝鮮結核豫防協會를 설립하여 결핵예방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조선총독부의 중요한 역할이 일정 부분 있었지만, 본문에서 검토하였듯이 총독부는 이후 결핵의 치료보다는 예방과 계몽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당시 해주구세요양원의 역할은 한국의 結核史, 나아가 醫學史에 새롭게 각인되어야만 한다.

### 【주제어】

해주구세요양원, 셔우드 홀, 결핵, 크리스마스 썰, 감리교 선교사, 결핵사

#### ◆ 차례

1. 머리말
2. 海州救世療養院의 설립 과정과 규모
3. 海州救世療養院의 운영 실태와 발전
4. 맺음말

## 1. 머리말

본고에서는 일제침략기 결핵환자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캐나다의 감

리교 선교사 셔우드 홀(Sherwood Hall, 1893~1991, 이후 ‘홀 박사’로 약칭) 박사가 1928년에 한국 최초로 설립한 황해도의 海州救世療養院(이후 한글 표기)을 중심으로 요양원의 설립 과정과 시설 운영 및 성과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sup>1)</sup> 물론, 해주구세요양원이 결핵전문 요양 병원이었다는 점과 원장이었던 홀 박사가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쌀(이하, ‘쌀’로 약칭)을 1932년 제작·발행하였다는 점에서 간단히 소개되기도 했지만,<sup>2)</sup> 대부분 쌀 관련이었으며 요양원의 설립 과정과 규모 및 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아직까지도 박멸되지 않은 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결핵은 여러 종의 미코박테륨(Mycobacterium), 특히 결핵균에 의해 발병하는 병으로 수천 년간 인류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이었다.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박멸되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1위를 기록해 ‘결핵 후진국’이란 오명을

1) 본고를 고찰하게 된 계기는 필자가 어렸을 때부터 우표와 크리스마스 쌀, 엽서 등을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주구세요양원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수많은 해주구세요양원의 결핵 관련 홍보자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학계에 소개되거나 연구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고를 작성하는데 이용된 자료는 소장자를 명기하지 않는 한 필자가 소장한 것이며, 이외의 것은 소장자를 명기한다. 한편, 자료의 제공과 더불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수집가 고 서원석 선생님의 손자 서동욱 선생님, 한국우취연합 간행위원장 남상욱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 이창성, 「韓國의 크리스마스 쌀 夜話(1)~(9)」(『보건세계』37-6~38-2, 대한결핵협회, 1990~1991) ; 남상욱, 「쌀 단상(斷想)-한국 최초의 쌀 이야기」(『보건세계』56-5, 대한결핵협회, 2009) ; 동, 「쌀 단상(斷想)-일제시기의 쌀 디자이너 “엘리자베스 키스”의 예술세계」(『보건세계』57-1·2, 대한결핵협회, 2010) ; 동, 「운보 김기창 화백이 쌀 디자이너?」(『보건세계』57-5, 대한결핵협회, 2010) ; 동, 「쌀 단상(斷想)-1935년 쌀의 도안자는 누구인가?」(『보건세계』57-6, 대한결핵협회, 2010) ; 신동규, 「일제침략기 선교사 셔우드 홀(Sherwood Hall)과 크리스마스 쌀(Christmas Seal)을 통해 본 한일관계에 대한 고찰」(『韓日關係史研究』47, 한일관계사학회, 2013).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34,869명이 새롭게 결핵 진단을 받기도 했다.<sup>3)</sup> 결핵균은 1882년 독일의 미생물학자인 로베르트 코흐(Heinrich Hermann Robert Koch)에 의해 발견되면서 치료의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는데, 역사적으로는 17,000년 전에 미국 와이오밍 주의 들소에게서 결핵균의 흔적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sup>4)</sup> 인간에게서는 기원전 4,000년 전의 선사시대 인간과 기원전 3,000~2,400년 전의 이집트 미라의 등뼈에서 결핵균이 발견되고 있으며,<sup>5)</sup> 기원전 460년경에 히포크라테스는 『아포리즘(Aphorism)』에서 폐결핵(Phthisis)에 대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역한 냄새의 객담을 내뱉으며 기침을 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명적이다.”<sup>6)</sup>라고 하였다. 이처럼 인류는 결핵이라는 고질적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치료와 퇴치 운동이 비로소 19세기 결핵균의 발견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3) 「만성 질환자 ‘결핵 주의보’」(『경향신문』, 2015년 8월 13일). 한편,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연간 사망자는 2000명이 넘는다. 13일 의료계와 질병 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 국민의 30% 이상이 잠복 결핵 감염자로 추정된다.”고 하여 결핵이 아직도 박멸되지 않은 만성 질환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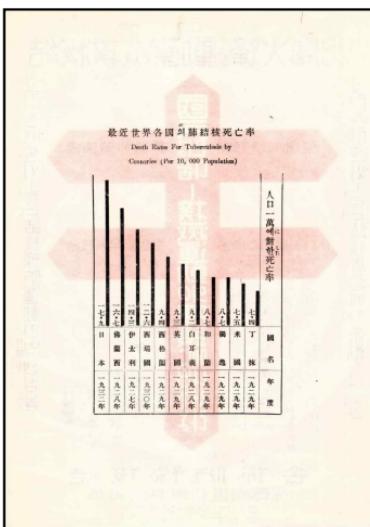
4) Bruce M. Rothschild et al,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DNA from an extinct bison dated 17,000 years before the present”,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33-3, 2001, pp.305-311.

5) Albert R. Zink et al, “Characterizat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DNAs from Egyptian Mummies by Spoligotyping”, *J Clin Microbiol.* 41-1, 2003, pp.359 - 367.

6) 최은경, 「개항 후 서양의학 도입과 ‘결핵’ 용어의 변천」(『醫史學』41, 大韓醫史學會, 2012), 228-229쪽, 재인용. 『醫史學』 논문은 다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http://medhist.kams.or.kr\[Full Text Download\]](http://medhist.kams.or.kr[Full Text Download]).



[자료1-1] 「크리스마스 씰 발행  
제5주년기념 미니 포스터」 앞면.  
1936년에도 발행됨.



[자료1-2] 뒷면. 「最近 世界各國의 結核 死亡率」.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 결핵은 언제부터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또 그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최은경에 의하면, 고대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 유행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현대의 결핵과 유사한 질병이 BC 1세기-0세기에 한반도에서도 유행한 흔적들이 보인다고 한다.<sup>7)</sup> 이후 한반도에서 결핵은 불치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근대 대한제국시기가 되었어도 콜레라 등 급성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전염병예방법’의 형태로 마련했을 뿐, 결핵과 같은 만성 전염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책을 준비하지 못했다. 일제 식민지 시대가 시작된 1910년대에 비로소 결핵에 대한 초보적인 법령이 반포되었고, 1930년대에 들어와 조선총독부가 결핵을 가장 중요한 질병으로 부각시키면서 각종 예방과 치료 대책이 그때서야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sup>8)</sup> 당시 결핵은 7명 중에 1명의 비율로 발생하

7) 최은경, 앞의 논문, 229쪽.

8) 朴潤栽, 「조선총독부의 결핵 인식과 대책」(『한국근현대사연구』47, 한국근

고 있었으며, 또 예방에 관해 선전이 부족한 관계로 희생자가 나날이 증가하던 일로였다.<sup>9)</sup> 더욱이 결핵은 ‘나병보다 무서운 질병’,<sup>10)</sup> 또는 ‘전쟁보다 무서운 질병’<sup>11)</sup>으로 인식되어 그 대책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었으며, 나아가 “널리 인간에 만연되어 있는 질병으로 실로 사회의 大敵”인 동시에 ‘亡國病’으로도 인식되고 있었다.<sup>12)</sup> 실제 「最近 世界各國의 結核 死亡率」([자료1-1·2] 참조)<sup>13)</sup>을 보면, 1932년 인구 1만 명당 결핵환자 사망률은 일본이 가장 높은 17.9명으로 총 11개국 중에서 최고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었다. 1935년의 수치를 보더라도 사망률은 거의 변함이 없었으며,<sup>14)</sup> 15개국 중에 세 번째로 결핵에 의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결핵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요양원 및 예방시설의 설립 등에 조선총독부의 대응은 매우 느렸으며, 1910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조선총독부의 결핵에 대한 대응의 변화와 한계는 일본의 불완전한 결핵대응을 반영한 것으로 동시에 조선총독부의 위생 전반에 걸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sup>15)</sup>는 평가도 받고 있다. 더욱이 일본 본토에서는 1919년에 제정되었던 ‘결핵예방법’이 식민지지배가 종결된 1945년까지도 식민지 한국에서는 제정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 자체

현대사학회, 2008), 217쪽.

9) 「朝鮮의 結核患者는 七對一의 比例 此亡國病의 救濟機關으로 抗結核會가 出現」(『毎日申報』, 1929년 10월 15일).

10) 「나병보다 무서운 폐결핵전문요양원 현실」(『中外日報』, 1929년 10월 15일).

11) 「戰爭보다 무서운 結核病 撲滅案」(『毎日申報』, 1936년 5월 2일).

12) 劉承仁, 「國民보건운동과 亡國病 結核의豫防」(『毎日申報』, 1938년 10월 16일).

13) 「最近 世界各國의 結核 死亡率」(크리스마스 썰 발행 제4주년기념 미니 포스터), 조선결핵예방협회 해주구세요양원 발행, 1935).

14) 内閣統計局, 「我國の結核死亡率と乳兒死亡率」(『週報』제16호, 『官報』제3024호 부록, 1937), 16-18쪽.

15) 최은경,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결핵정책(1910-1945): 소극적 규제로부터 시작된 대응과 한계」(『醫史學』45, 大韓醫史學會, 2013), 713-715쪽.

도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보다는 개인위생에 대한 강조<sup>16)</sup>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한국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만성 질병과 전염병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의료체계 전반이 본토와 같이 한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며, 결핵에 한정해 말하자면 오히려 해주구세요양원과 같은 일종의 해외선교사 병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결핵예방과 치료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홀 박사가 설립한 해주구세요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관으로 한국 최초로 1928년에 건립되어 실질적인 결핵예방 활동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을 결핵으로부터 완치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대변해 준다(이에 대해서는 후술).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해주구세요양원의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의학사적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물론, 박윤재가 해주구세요양원을 중심으로 홀 박사의 결핵 퇴치를 위한 의료 활동, 그리고 이러한 의료 활동과 조선총독부와의 관계를 의학사적인 입장에서 1940년 홀 박사가 추방당할 때까지 검토<sup>17)</sup>하고 있어 선구적인 연구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본고도 이에 시사 받은 점이 많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주구세요양원의 상세한 설립과정과 시설의 규모 및 운영 실태를 규명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의 의료 활동 속에서 해주구세요양원의 역사적 평가 및 한국사에서의 의미부여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테마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홀 박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떠한 과정 속에서 해주

16) 박현수, 「식민지 조선에서 결핵의 표상-나도향의 경우」(『泮橋語文研究』 34, 반교언문연구회, 2013), 275쪽.

17) Park Yun Jae, 「The work of sherwood Hall and the haiju tuberculosis sanatorium in colonial Korea」(『醫史學』45, 大韓醫史學會, 2013), 681-712쪽.

구세요양원을 설립했는가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함께 지금까지 불명확했던 요양원 시설 규모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는 지금까지 전혀 소개되지 않은 구세요양원의 홍보인쇄물 등을 통해 요양원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또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과 발전,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소개가 안 되거나 쉽게 접할 수 없는 희소한 수집 자료들이고 결핵이라는 특수한 홍보자료로서 그 한계성과 함께 마니아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홀 박사와 해주구세요양원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선명히 부각시켜 주리라 생각해보며 상기의 과제를 검토해보겠다.

## 2. 海州救世療養院의 설립 과정과 규모

해주구세요양원의 설립 배경과 과정은 홀 박사의 개인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선 요양원을 설립하기 이전까지의 발자취를 그의 자서전인 『조선회상』<sup>18)</sup>을 토대로 검토해보겠다. 홀 박사는 평양에서 서양의학과 기독교를 전한 감리교의 선교의사인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과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부부의 아들로 1893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부친 윌리엄은 평양에서 선교와 의료 활동을 하였으며, 청일전쟁 중에 부상병을 치료하다가 과로로 1894년 11월 24일 순직하였다. 모친 로제타는 후에 서울에 와서 동대문부인병원(현 이화여자대학병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병원) 및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의 인천분원(현 인천기독병원)을

18) 이하, 홀 박사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은 특별히 각주를 붙이지 않는 한 자서전(셔우드 홀/김동열 역, 『닥터 홀의 조선회상』, 좋은씨앗, 2003)과 자서전 뒤편의 「닥터 홀 일가 중요 연표」를 참고하였음을 밝혀두며 본문 중에서는 『조선회상』으로 약칭한다.

세웠으며, 한국의 의료사업에 헌신적으로 평생을 바쳐 ‘평양의 어머니’라고도 불리기도 했다([자료2]).<sup>19)</sup>

한편, 홀 박사는 1900년 6월 평양외국인학교 첫 입학생으로 베어드(Baird) 등 4명과 1908년까지 수학했다. 1911년에는 미국 오하이오 주 마운트 허몬(Mount Hermon)학교를 거쳐 1919년 마운트 유니온대학을 졸업하고, 1922년에는 메리안 베텀리(Marian Bottomley)와 결혼했다. 그는 한국의 가난한 결핵환자들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1923년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24년 뉴욕 롱아일랜드의 홀츠빌 서퍼크 결핵요양소에서 결핵을 전공하였고, 1925년 8월 미국 감리회 의료선교사로 임명되어 1926년 4월 19일 메리안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1926년 7월 해주구세병원(Norton Memorial Hospital)<sup>20)</sup> 원장으로 부임하여 의창학



[자료2]『The Mother of Pyong Yang』(89mm×159mm).

19) Mary Wilton[Helen Young Snyder], *The Mother of Pyong Yang* no publisher, no data(1926 이후[?], 89mm×159mm). 로제타 여사가 평생을 바쳐 한국의 의료 활동에 봉사한 업적을 기린 소책자로 그녀의 업적과 일생, 가족사진을 게재하고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상단의 ‘A. F. Balla’사인은 미국의 크리스마스 셀 수집가 알버트 벨라(Albert F. Balla)가 로제타 여사로부터 소책자를 수집했을 당시 로제타 여사가 기입한 사인이며, 이 자료는 필자가 알버트 벨라의 손자인 제임스 벨라(James Balla)로부터 수집한 것이다. 셔우드 가문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하를 참조. 로제타 셔우드 홀/현종서 역, 『닥터 윌리암 제임스 홀』(에이멘, 1994) ; 셔우드 홀/김원경 역, 『인도회상』(좋은씨앗, 2009) ; 박정희, 『닥터 로제타 홀』(다산초당, 2015) ; 김성은, 「로제타 홀의 조선여의사 양성」(『한국기독교와 역사』2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 김정민, 「로제타 셔우드 홀의 선교사역에 대한 연구」(감리교신학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0) 해주구세병원은 ‘노튼기념병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병원은 평북 영면에

교 교장직도 겸임하였고, 운산금광(동양연합광업회사) 담당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기도 했지만, 그의 원대한 목표는 한국에 결핵요양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가 언제부터 한국에 결핵요양소를 설립하려 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서전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다는 자서전의 내용(『조선회상』, 424쪽), 그리고 1930년 「朝鮮初有의 肺病治療所인 海州救世療養院을 紹介함」에 기술된 “평양연합기독병원의 설립자인 홀박사(여기서는 윌리엄 제임스 홀)의 러시으로 20년 전에 조선에 있을 때부터 특별히 폐병환자를 고쳐 줄만한 좋은 병원을 설립하려 하는 홀륭한 이상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sup>21)</sup>라는 내용을 볼 때, 1910년 무렵에 한국에 결핵요양소를 설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퍼크 결핵요양소에 있을 때에도 동료의사와 논의를 한다든지, 엑스레이 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기금도 모으고 있었다(『조선회상』, 392쪽). 하지만, 한국의 감리교 선교부 내부에서도 재정문제로 인해 결핵요양소의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홀 박사의 요양소 설립 의지는 확고했으며, 마침내 1927년 6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홀 박사가 해주구세병원의 원장을 겸하면서 결핵요양소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조선회상』, 400-404쪽).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선교부나 위원회로부터 예산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 이후에도 홀 박사는 요양소의 발전을 위해 기금확보와 모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요양소의 설립에 낙관적인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메리 스코

서 활약하던 의료선교사 노튼(A. H. Norton)이 1910년에 설립한 병원으로 1913년 5월 말까지 모두 24,454명을 치료하는 성과를 냈다(海州市誌編纂委員會編, 『海州市誌』, 海州市誌編纂委員會, 1994, 474쪽).

21) 神學指南編輯部, 「朝鮮初有의 肺病治療所인 海州救世療養院을 紹介함」(『神學指南』12-1, 神學指南社, 1930), 81쪽.

트 버버그가 공중위생 분야에 사용해달라고 남긴 유산 3,850 달러의 사용이 허락되면서부터이다. 이후 홀 박사 부부는 해주의 자택 부근에 요양소 건립 부지를 확정하였고, 또 형광투시경과 엑스레이 등 결핵 치료를 위한 기구들도 사전에 구입 신청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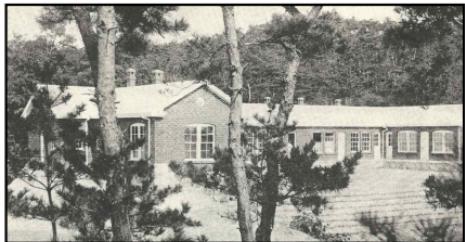
그러나 예기치도 않은 난관이 있었다. 당시 해주시장이 “결핵요양소 설립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시에 결핵환자들이 우글거리게 할 수는 없지 않소.”(『조선회상』, 421쪽)라고 허가를 거부했기 때문인데, 이와 함께 요양소 건립 부지가 공원을 조성하려는 곳이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도 덧붙여 강하게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때의 절망감을 홀 박사는 “소년 시절부터 키워온 꿈이 비로소 이루어지려는 순간,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는 일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나의 절망감은 너무나 커서 ‘세상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조선회상』, 424쪽)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던 중 평소에 알고 지내던 경찰부장 사사키를 방문해 조언을 구했고, 그로부터 부지를 옮기고 나서 다시 재신청하라는 조언에 따라 처음의 부지에서 수백 미터 거리에 있는 더 좋은 부지에 대한 매입 허가를 시장과 시의원들로부터 받아내고 있다(『조선회상』, 425- 426쪽).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는 사사키의 도움이 컸음을 홀 박사는 자서전에 남기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사키는 바로 1926년 6월 26일부로 황해도 경찰부장에 임명된 사사키 츄에몽(佐佐木忠右衛門)<sup>22)</sup>으로 결핵요양소의 설립에 공식적인 조선총독부의 도움은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일종의 협력을 얻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드디어 1928년 3월 무렵에 해주읍 남산 밖(外)<sup>23)</sup>에 부지를 정한 요양

22) 『朝鮮總督府官報』(1926년 7월 1일). 사사키는 1919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1920년에 경찰관강습소 교수 및 조선총독부 사무관을 지냈으며, 1930년부터는 경찰관강습소 소장, 평안북도 내무부장을 지냈고, 1933년부터는 황해도 내무부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 『朝鮮人事興信錄』, 朝鮮總督府, 1935, 191쪽).

소의 건축 허가가 나왔고, 4월 13일에는 기공식이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명칭은 ‘결핵환자위생학교’였다(『조선회상』, 443쪽). 결핵 예방을 교육한다는 의미의 학교라고 하지만 주목적은 결핵의 치료였다. 자서전에도 ‘결핵환자위생학교’라는 명칭과 ‘해주구세요양원’이라는 명칭이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건립 단계였던 4월에는 ‘결핵환자위생학교’,

의 건축을, 그리고 5월에는 ‘해주구세요양원’의 건축을 착수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후 10월에 ‘결핵환자위생학교’와 ‘해주구세요양원’의 개교식 겸 개원식이 이루어진 뒤부터는 ‘해주구세요양원’이라는 명칭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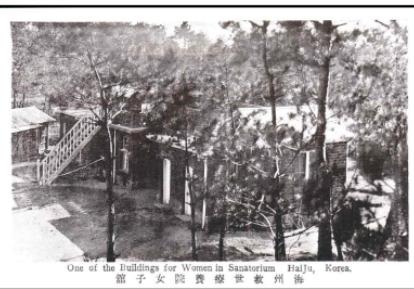


[자료3-1] 해주구세요양원 본관의 모습  
(『Korea India, Tuberculosis Control in Two Lands』 수록 사진).



One of the Buildings for men in Sanatorium Haiku, Korea.  
海州 救世療養院 男子館

[자료3-2] 「海州救世療養院山下館」  
엽서(일제침략기), 136.5mm×92.5mm.



One of the Buildings for Women in Sanatorium Haiku, Korea.  
海州 救世療養院 女子館

[자료3-3] 「海州救世療養院女子館」  
엽서(일제침략기), 137mm×92mm.

23) 해주구세요양원, 「설-販賣의 價格과 使用法」(1932, 남상우 소장). 이 자료는 해주구세요양원의 연하카드와 홍보를 위해 발행한 것이다. 다만, 1934년에 발행된 후술하는 [자료4-1·2]의 「本院案內書」에는 ‘黃海道 海州郡 沐東面 王神理’로 되어 있고, 1938년에 발행된 『療養村(제4집)』 잡지에는 ‘海州府 王神理 210’로 되어 있다(海州救世療養院出版部, 『療養村(제4집)』, 海州救世療養院出版部, 1938, 41·63쪽).



[자료4-1] 해주구세요양원 「本院案内書」  
인쇄홍보물 바깥 면.

해주구세요양원의 입지 조건도 환경이 중요한 환자들에게는 최적이었다([자료3-1]<sup>24)</sup>. [자료3-2·3] 참조). 1934년(발행 연도에 대해서는 후술)에 발행된 「本院案内書」([자료4-1·2])의 요양원 위치 설명에는 “본원은 뒤로 준엄한 首陽山이 솟아있고 앞으로는 양양한 黃海水가 흐르는 海州 南山 중복 송림이 울창한 곳에 위치하였다. 송풍이 한 번 불면 맑은

종소리가 저절로 울리고, 울창한 송림은 무시로 테르펜(terpene, 원문에는 ‘테레벤징’)의 향기를 방출하며, 남해의 호수는 천연적으로 풍성한 오존을 산출하여 공기가 신선하고 자연의 모습이 절승한 別有天地 非人間의 낙원 같은 감상이 있으니 심신을 정양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상적 지대라 하겠다.”<sup>25)</sup>라고 소개하고 있어 안정과 깨끗한 공기가 필수적인 폐질환 환자에게는 적합한 입지였다.

아무튼 이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주요 건물이 9월에 완성되어 10월 26일에는 낙성식을 거행하였으며,<sup>26)</sup> 주문한 엑스레이 기구들도 미국에서 도착하여 공식적인 개교식을 10월 28일에 개최하기에 이르렀

24) Albert. F. Balla, *Korea India, Tuberculosis Control in Two Lands*(Reprinted from “WORLD OUTLOOK”, 367), no publisher, no data, p.5.

25) 海州救世療養院, 「本院案内書」(海州救世療養院, 1934, 서동욱 소장). 이 자료에는 “1. 위치, 2. 기후, 3. 창설자, 4. 연혁, 5. 설비, 6. 특별치료종목, 7. 입원 규정, 8. 교통” 등 8개 항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한편, 이하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현대문에 맞게 문장을 수정한다.

26) 「龍塘浦海岸에 救世療養院-肺病患者의 大福音 二六日에 落成式」(『동아일보』, 1928년 10월 31일).

다. 이때의 감회를 훌 박사는 “식장에서 메리언(부인)이 테이프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느꼈다. 이는 고통 받는 조선의 결핵환자들을 위해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리는 극적인 순간인 것이다.”(『조선회상』, 457쪽)라고 적고 있다.



[자료4-2] 해주구세요양원「本院案內書」인쇄홍보물 안쪽을 펼친 면. 바깥 면에는 요양원의 주소와 수신자 주소기입란이 인쇄되어 있음.

해주구세요양원의 수입은 모두 환자의 치료와 요양원의 확장에 투자되었다. 1929년 7월 무렵에도 3천여 원을 들여 병실 확장공사를 하였으며,<sup>27)</sup> 자서전에도 1929년부터 공사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규모가 상당하다. 전술한 「本院案內書」의 네 번째 항목에는 요양원의 연혁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를 다음에서 살펴보겠다.

27) 「海州救世療養院 다시 擴張計劃-각디의 결핵환자를 치료 三千餘圓 經費豫算」(『동아일보』, 1929년 7월 16일).

#### [자료5] 四. 沿革

1928년에 본원을 비로소 창설하였다. 처음에는 연와로 지은 140여 평의 요양실을 건축하고 개원한 후 요양의 성적이 양호하여 환자가 연이어 찾아와 요양실이 협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익년에 40여 평의 부인요양실을 증축하고, 또 익년에 다시 50여 평의 요양실을 증축하였으나, 오히려 부족함으로 작년 가을에 다시 2개소의 웅대한 요양실을 증축하는 동시에 일반 환자에게 기독의 정신과 도덕적 수양을 주기 위하여 거액의 금액을 투자하여 미술적 근대식 부속예배당과 오락실을 신축하였다. 외부 설비가 이같이 완전한 이상으로 내부의 설비도 충실히 되었다.

[자료5]의 밑줄 부분에는 작년 가을에 부속예배당을 신축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부속예배당은 홀 박사의 모친 이름을 딴 ‘로제타 교회당’을 말하며 1933년 9월 2일에 헌당식을 개최(『조선회상』, 553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발행된 것은 1934년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연혁 자료로부터 1928년 개원 당시 140여 평이었는데, 1929년에는 40여 평의 부인요양실을 증축하였고, 1930년에도 50여 평의 요양실을 증축하였지만 부족하여 1933년 가을에 다시 2개소의 커다란 요양실을 증축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건물들의 내역에 대해서는 「本院案內書」의 「五. 設備」([자료6]) 항목에 의료설비와 함께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볼 때 해주구세요양원은 당시 한국에서 최고의 결핵전문 의료기관으로서의 수준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자료6] 五. 設備

- 一, 연와로 만든 본관 1동 및 부속기숙사 2동.
- 一, 연와로 만든 여자 입원병동(入院舍) 1동 및 부속기숙사 2동.
- 一, 연와제 일등 입원병동 1동, 부속기숙사 1동.
- 一, 연와제 특등 입원병동 1동, 상동.
- 一, 동양식 3등 입원병동 2동.
- 一, 동 무료 입원병동 1동.
- 一, 천연석 특제 모범예배당 및 오락실 1동.
- 一, 부속백화점 및 식당 각 1동.

- 一, 靜坐閣 3동 및 공기막 20여 개소.
- 一, 부속 목장 및 농장의 시설 등.
- 一, 자동차 2대.
- 一, X광선 1개.
- 一, 특제 타이아톨미(원문: 따이아톨미, 미상) 1개.
- 一, 인공태양등 2개.
- 一, 인공기흉기 수개.
- 一, 治胸器 및 기타 특별 전기치료기 등.
- 一, 세균 병리시험실 1개소.
- 一, 특별 일광욕실 2개소. 기타 소독실, 목욕실, 사무실, 대기실, 치료실, 오락실 등.
- 一, 특별 운동장 및 기타 운동 선로 등.
- 一, 신문, 잡지, 기타 라디오, 풍금, 그 외에 수종의 오락기구가 있다.
- 一, 화원, 토끼 사육장, 양계장 여러 곳.<sup>28)</sup>

[자료6]에 보이는 요양원의 전체 규모를 보면, 본관 1동, 기숙사 5동, 입원병동(入院舍)이 6개동, 예배당, 오락실, 부속농장 등의 건물과 함께 의료기구도 X광선(X-ray)을 비롯하여 당시로선 최신식 기구인 인공태양등·인공기흉기·전기치료기가 구비되어 있었고, 세균 병리시험실·일광욕실·소독실·치료실뿐만 아니라, 사무실·대기실·오락실·운동장 등 결핵환자의 치료와 요양을 위한 모든 시설을 완비해 놓고 있었다. 다만, 무료 입원병동 1개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료로 결핵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홀 박사의 선교 의사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해주구세요양원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점이다. 또한, 제일 끝 부분에는 화원과 토끼 사육장 및 양계장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둔 것은 홀 박사가 “나는 요양원에서 운영하는 모범농장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렇게 하면 환자들은 지루한 회복기 동안에 육체적으로 덜 힘든 현대적 영농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부 출신의 환자들은 퇴원 후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배

28) 海州救世療養院, 「本院案內書」, 앞의 자료, 「五, 設備」.

운 현대식 농사법을 그 지방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이점도 있다.”(『조선회상』, 474쪽)라고 말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당시 대부분 농촌 생활을 했던 환자들의 퇴원 후의 생활까지도 고려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은 지속적으로 농지를 확장시켜 나갔고, 1933년 무렵에는 30,600평의 땅을 확보해 환자들의 부식 조달에 이용했으며, 곧바로 인접한 122,400평의 땅을 사려고 모금운동에 들어갔던 것이다(『조선회상』, 549쪽).

그렇다면 전체 요양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홀 박사의 『조선회상』에는 당시 요양원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그림([자료7])이 한 점 실려 있는데, 언제 누가 그렸는지는 불명확하지만, 홀 박사는 “한 조선인 화가가 그런 해주결핵요양원 및 주변 풍경 그림. 결핵요양원과 교회, 농장, 재활센터 등도 이 그림에 모두 나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 규모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현재의 위성사진([자료8])과 비교해 보겠다. 1934년 무렵 요양원은 ‘黃海道 海州郡 泳東面 王神理’에 있었으며([자료4]의 「本院案內書」 표지), 1938년에 발행된 『療養村(제4집)』 잡지에 따르면 ‘海州府 王神理 210’이 주소로 명기되어 있는데,<sup>29)</sup> 1977년에 왕신리가 남산 근처에 있다고 하여 남산동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면 북한의 행정구역으로 ‘황해남도 해주시 남산동’에 해당된다.

[자료7·8]의 위치 관계가 약간 어긋나 있기는 하지만, [자료8]의 위성사진을 약간 아래로 회전시키면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요양원과 그 부속건물의 터가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8]에서 요양원과 붙어 있는 바로 남서쪽의 산이 남산인데, 그 우측에는 농장이 있었고, 요양원의 위쪽으로는 부속예배당(로제타 교회당)이 있던 자리로 현재는 건물이 없으며, 특이한 형태의 다른 기념물이 들어서있다. 당시 요양원과 부속건물 및 농장 면적 전체를 특징지을 수는 없지만,

29) 각주 23)번 참조.

증축공사와 농장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요양원 부지의 규모는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7] 「한 조선인 화가가 그린 해주구세요양원 및 주변 풍경 그림」(『조선희상』, 709쪽)



[자료8] 구글어스(Google Earth) 위성지도에서 검색한 현재 해주시 남산동의 옛 해주구세요양원 터(2015년 10월 4일 검색한 위성사진으로 위치 표시와 거리표시는 삽입하여 수정한 것임)

### 3. 海州救世療養院의 운영 실태와 발전

해주구세요양원의 설립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결핵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업들은 1936년 재단법인(이에 대해서는 후술)으로 성장한 이후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다음의 해주구세요양원의 규칙에 잘 나타나 있다.

#### [자료9]

##### 본원 규칙의 일부

###### 一, 재단법인기부행위규정

###### 제一장 총칙

제1조 본 법인은 재단법인 해주구세요양원이라 칭함.

제2조 본 법인은 결핵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3조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원문: 左)의 사업을 행함.

1, 결핵환자를 무료 또는 輕費로 진료함.

2, 결핵에 대한 상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강연회 또는 간행물을 발행함.

3, 결핵의 병리적 연구를 위하여 도서실을 설치함.

4, 본 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장 및 농장을 경영함.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함.

제4조 본 법인은 그 사무소를 황해도 해주부 왕신리 210번지에 둠.

###### 제二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본 법인 재산은 이하와 같음(원문: 如左함).

1, 본 법인에 속한 동산 및 부동산.

2, 보조금 및 公私의 기증에 의하여 얻은 금품.

3, 본 법인의 사업 또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기타 잡수입.

제6조 본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조의 자산으로 기본 재산을 정함.

기본 재산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음.

제7조 본 법인의 경비는 본 법인의 사업 또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보조금, 또는 公私의 기증 그 외의 수입으로 이것을 충당함.

제8조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함(이하 略).<sup>30)</sup>

즉, 주된 사업은 제3조에 보이듯이 ①결핵환자에 대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 ②결핵 상식의 보급을 위한 강연과 간행물의 발행, ③결핵의 병리연구를 위한 도서실 설치, ④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목장과 농장의 경영, ⑤기타 필요성이 있는 사업 등이다. 이러한 사업으로 생긴 자산은 제5조의 보이듯이 동산과 부동산, 보조금과 公私의 기증에 의한 금품, 사업 또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입원과 진료사업, 보조금과 기부금, 크리스마스 셀 판매 등을 통해 요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검토해보겠다.

해주구세요양원은 홀 박사가 한국의 결핵퇴치와 예방 및 선교활동을 위해 설립한 시설이지만, 모든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전부 무료는 아니었다. [자료9]의 제3조 1항에서 알 수 있듯이 요양원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1930년 1월 「폐환자의 기쁜 소식」이라는 홀 박사가 작성한 해주구세요양원 홍보물에는 입원에 따른 주의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이 치료비용을 공지하고 있다.

#### [자료10] 주의사항

一, 초기 폐환자.

二, 3개월 간 입원 능력이 있는 자.

三, 1개월 간 입원료(30원, 45원, 60원).

30) 海州救世療養院出版部, 『療養村(제4집)』, 앞의 책, 41쪽. 여기에는 규칙의 일부만 기술하고 있어 전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언제 제정되었는지 현재로서는 불명이다.

四, 식사, 침구 등은 환자 자부담.

五, 이학적 치료(X광선, 디아테르미[투과열 치료법], 인공태양등).

六, 특별 주사 및 특별 藥代는 실비로 계산함.

1930년 1월 일<sup>31)</sup>

[자료10]의 밑줄 부분을 보면, 입원할 수 있는 대상은 초기 결핵환자로서 3개월 간 입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전제되고 있다. 또한, 1개월 간 입원료는 세 가지 타입으로 30원, 45원, 60원이었으며, 여기에 식사와 침구류 등은 자비 부담이었고, 특별 주사나 특별 약대는 실비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32년 3월의 쌀 1가마 가격이 최저 16원 31전에서 최고 24원 47전<sup>32)</sup>이었다는 것을 비교해본다면, 최소한의 경비였다고는 생각되지만, 일반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액수였을 것이다. 이 주의사항은 해주구세요양원의 「本院案內書」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확한 입원규정으로 확립되어 갔다.

#### [자료11] 입원규정

一, ①경증 환자로 입원 요양함(남녀불구하고 입원함).

一, 3개월 이상 계속 진료코자 하는 자를 요함.

一, ⑤입원 시 가족 친족 또는 친우 등의 보증인을 요함.

一, ⑥입원료는 특등 월 50원, 1등 월 45원, 2등 월 30원.

一, ⑦입원료는 매월 1개월분 선납함.

一, 이화학 치료(X광선, 타이아톨미, 인공기흉 및 인공태양등) 등 특별 주사 및 특별 약대는 입원료에 포함치 않음.

一, 식사 및 침구 등은 환자 측 부담. 특히 침구 등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요함.

一, ⑧식사[식당 식대는 월에 20원, 일에 1원(1일 3식), 食母用 자취비는 매월 20원 내지 30원 가량]<sup>33)</sup>

31) 黃海道海州救世療養院白, 「肺患者의 기쁜 소식」(『神學指南』12-1, 神學指南社, 1930), 193쪽.

32) 「今年度米穀基準價格을高位로改正 廿八日農林省議決定됐다」(『동아일보』, 1932년 3월 30일).

즉, [자료11]의 밑줄 ①와 ②로부터 남녀가 모두 입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입원 시에 보증인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밑줄 ③와 ④로부터 특등실의 입원료를 10원 내렸고, 매월 선납해야 하며, 밑줄 ⑤를 보면 식사비는 모두 별도이고 식모를 이용했을 경우 자취비까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으로 보아 현재의 입원실 같이 1인 특실, 2인실, 다인실 같이 병실과 요금이 세분화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급화된 병원이었음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원 규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되었는데 1936년에 재단법인 허가를 받은 후인 1938년의 입원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자료12] 본원입원규정

입원 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

一, 경증자로 입원 요양함(남녀불구).

①단, 중증환자는 입원을 거절할 경우도 있음.

二, 입원 시에는 가족 친족 또는 친우 등의 보증인을 요함.

三, 입원 시에는 보증금(1개월분 이상을 납입함).

四, ②입원료는 특등 월 65원, 1등 월 60원, 2등 월 50원, 3등 월 35원.

五, 이화학적 치료(자외광선욕, X광선, 타이아톨미, 인공기흉 및 인공태양등), 주사료 및 특별 약대는 입원료에 포함치 않음.

六, ③입원을 허가받았을 때는 즉시 신환자실에 수용하여 X광선 사진 및 투시 제반의 임상검사 후에 병실에 입원케 함. 이 요금으로 10원을 선납케 함.

七, 침구 등은 환자 측 부담.

八, ④부침(식모)은 본원에서 제공함.

九, ⑤부속식당비 월 정액 45원, 30원, 20원. 단 자취는 불허. 식대 선납. 재단법인 해주구세요양원<sup>34)</sup>

33) 海州救世療養院, 「本院案內書」, 앞의 자료, 「七. 入院規定」.

34) 海州救世療養院出版部, 『療養村(제4집)』, 앞의 책, 36쪽.

[자료12]는 [자료11]보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밑줄 ①로부터 중증환자는 입원을 거부할 수 있음을 새롭게 명시하였고, 밑줄 ③에서는 입원이 허가되었을 때는 신환자실에 있으면서 X광선 등 제반의 임상검사를 마친 후에 입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다. 또 [자료11]에서와 같이 원래 食母用 자취비는 매월 20원 내지 30원 가량을 받고 있었으나, 위의 [자료12] 밑줄 ④에서는 식모를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요양원의 환자가 늘어나 식모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이러한 개정이 필요했던 것은 요양원의 경제적 운영상의 문제가 컼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밑줄 ⑤부터 입원료가 특등과 1등은 월 15원, 2등은 월 20원이 인상되었고, 새롭게 3등 입원실이 생겨 월 35원을 받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밑줄 ⑥에서 새롭게 입원할 시의 제반 검사비용 10원을 받는다든지, 밑줄 ⑦에서와 같이 매월 식비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인상함과 동시에 자취를 불허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1940년의 입원규정도 [자료12]와 동일한데, 다만 부속식당비로 월 정액 30원 등급이 제외되어 월 정액 45원과 30원만 남아있다.<sup>35)</sup>

한편, 해주구세요양원은 설립 전후에 거의 훌 박사의 개인의 노력에 의해 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단지 허가 문제로 황해도 경찰부장 사사기 츄에몽의 사적인 도움을 받았을 뿐인데, 설립하고 나서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르자 조선총독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원조하기 시작했다. 1929년 1월에는 조선총독부에서 공문과 함께 100달러의 수표를 지원해주었고, 2월에는 도지사로부터 천황이 보낸 감사장과 함께 35달러를 지원받았다(『조선회상』, 464쪽). 더군다나 1931년 12월에는 다음과 같이 국고지원의 결정을 받고 있다.

35) 海州救世療養院出版部, 『療養村(제16집)』(海州救世療養院出版部, 1940), 10쪽.

## [자료13]

해주구세요양원은 창설 아래 폐결핵 환자들에게 일대 복음을 주어 완치자가 날로 증가하여 사회사업으로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며, 또 그 창설 자인 셔우드 홀 씨는 결핵요양의 전문가로 구미 각국의 결핵요양기관을 시찰하고 와서 이제 海州療養院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바, 황해도의 유일한 사회사업기관으로 매년 紀元節 하사금으로 100원을 급여하였으나, 이번에 국고에서 350원을 보조하기로 하여 황해도 지사에게 그 전달을 의뢰하여 왔다고 한다.<sup>36)</sup>

[자료13]의 밑줄로부터 해주구세요양원이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매년 조선총독부로부터 ‘紀元節’ 하사금으로 100원을 지원받아 왔으나, 1931년 12월에 350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으로 ‘紀元節’이 2월 11일이기 때문에 1932년부터 2월 이후부터 350원을 지원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핵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책으로 전문 병원을 설립하는 등의 실질적 대응책을 취하지 못했던 조선총독부가 해주구세요양원에 대한 자금 원조를 통해 결핵퇴치를 위한 우회적 협력 체제를 모색한 것이다. 단지, 그 지원액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해주구세요양원이 자력으로 확보했거나 일반의 기부금에도 못 미치는 아주 미미한 액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당시까지 조선총독부의 결핵 치료에 대한 대응책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책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대응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936년 4월 7일 조선총독부가 朝鮮結核豫防協會(조선호텔에서 발회식)를 설립<sup>37)</sup>하면서 변화되었다. 朝鮮結核豫防協會는 총독부에 본부를 두고 각 도에 본부를 두어 결핵예방을 선전하는 것 외에 각 도의 경비에 따라 결핵요양소를 설치하고, 각 공장·홍

36) 「海州救世療養院 國庫補助를 紿與·結核療養의 唯一한 機關」(『毎日申報』, 1931년 12월 5일).

37) 「朝鮮結核豫防協會 今日午後三時朝鮮호텔에서 盛大한 發會式舉行」(『毎日申報』, 1936년 4월 8일).

행소·접객업·학교 등의 위생시설, 특히 각 학교의 위생시설에는 중점적으로 생도들에 대한 건강 상담 및 전담의사의 배치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 해에는 총독부의 예산에 그 경비까지 계상하기로 하였던 것이다.<sup>38)</sup> 이에 따라 총독부는 朝鮮結核豫防協會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고,<sup>39)</sup> 동년 4월 27일 충청남도,<sup>40)</sup> 4월 28일에는 함경남도에서 결핵예방협회가 발족되면서<sup>41)</sup> 동년 5월까지 전국 13개도에서 모두 설립되었으며<sup>42)</sup> 이후 각도의 지부까지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를 볼 때, 총독부의 결핵에 대한 대응책이 朝鮮結核豫防協會의 설립 이후 적극적으로 전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적극적인 대책의 전환이라고는 하지만, 「結核豫防協會 設立趣意書」의 결핵 “예방에 대한 지식의 보급계몽을 포함해 시설의 실현을 촉진하고, 속히 본병의 예방박멸을 기망하는 바이다.”<sup>43)</sup>라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예방과 계몽이 중점이었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결핵치료를 위한 전문 병원의 신설이나 치료기구의 도입 및 확충이 아니라, 기존의 도립병원을 이용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총독부의 해주구세요양원을 이용한 결핵예방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아무튼 해주구세요양원은 그 규모와 결핵치료의 측면, 그리고 자금의 확보라는 면에서도 점점 확장·발전되고 있었다. 1932년 11월 27일에는 ‘폐결핵박멸운동후원회(폐결핵박멸 및 예방운동후원회)’가 해주구 세요양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선전원 5명을 선출하여 전국 각지에 파견시켜 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보건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38) 「健康相談醫配置와 療養所設置注力 道마다 道本部두고 猛活動 結核驅逐運動白熱」(『毎日申報』, 1936년 4월 10일).

39) 「結核豫防協會 宣傳普及에 主力」(『조선중앙일보』, 1936년 4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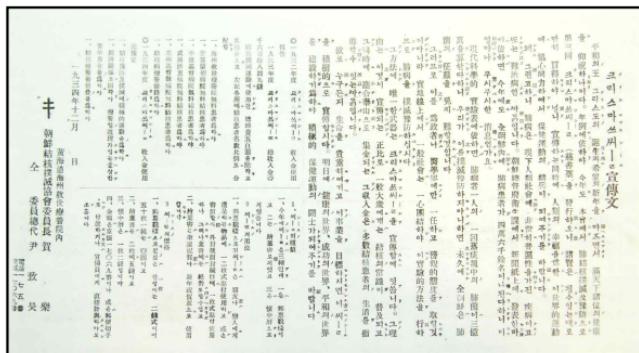
40) 「大田府에서도 結核豫防協會」(『조선중앙일보』, 1936년 4월 30일).

41) 「咸南 結核豫防協會 發會式 舉行」(『동아일보』, 1936년 4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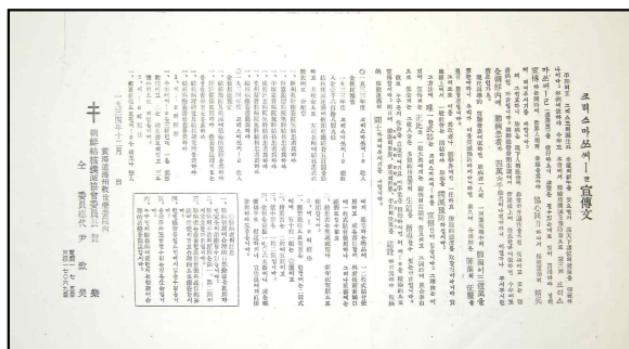
42) 「結核豫防 協會 設立 順調進行 十三道에 全部 設立」(『동아일보』, 1936년 5월 3일).

43) 「結核豫防協會 設立趣意書」(『毎日申報』, 1936년 4월 8일).

후원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sup>44)</sup> 이와 함께 동년 12월 3일부터는 해주 구세요양원에서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쌀을 제작·판매함으로써 결핵 치료와 요양원 운영자금의 확보도 이전보다 훨씬 호전되어 갔다.



[자료14] 「크리스마스 쌀 宣傳文」(A형, 1934년 12월, 복사물, 362mm×198mm).



[자료15] 「크리스마스 쌀 宣傳文」(B형, 1934년 12월, 서동욱 소장, 크기 미확인). 이것은 원본이 아니라, 복사품으로 용지 2매에 복사하여 이어 붙인 것이다.

44) 海州療養院院長 賀樂(셔우드 홀), 「크리스마스 쌀의 유래」(『療養村』제4집, 海州救世療養院出版部, 1938), 4쪽 ; 「肺結核撲滅運動 海州救世療養院 開始-후원회까지 조직해야 조력, 各地에 特派員을 派遣」(『중앙일보』, 1932년 11월 29일) ; 「結核撲滅을 期코자 朝鮮의으로 運動-海州結核療養院을 中心으로 撲滅後援會組織」(『毎日申報』, 1932년 12월 2일).

실제로 셀의 판매액은 각지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결핵에 걸린 무료 환자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고,<sup>45)</sup> 이 사실은 「크리스마스 셀 宣傳文」(A)[자료14])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선전문에는 1932년도의 크리스마스 셀 수입금 사용보고와 함께 1933년도 크리스마스 셀의 총수입금이 1,618원 9전이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해주 구세요양원의 무료 환자를 위하여”라는 문구와 함께 세브란스(世富蘭偲)병원, 평양기독병원, 함흥제혜병원, 광주기독병원의 무료 환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같은 종류의 선전문이지만, 내용이 상이한 또 다른 「크리스마스 셀 宣傳文」(B)[자료15])에서는 1934년도의 크리스마스 셀의 수입금 사용 용도를 ①결핵 예방 및 적극적인 운동을 위하여, ②결핵 예방 및 박멸과 경제적으로 요양할 수 없는 청년 남녀를 위하여, ③결핵 병리연구 및 결핵연구소를 위하여, ④결핵 요양서 서책을 위한 도서 비용으로 책정하고 있었다.

해주구세요양원의 이러한 발전은 1936년 4월 20일에 자본금 97,800여원, 동년의 하사금 300원, 전희철과 김병서의 기부금 1,000원을 합쳐 자산총액 10만원의 재단법인 신청으로 이어졌고,<sup>46)</sup> 1936년 9월 16일부로 최종적인 법인 인가를 받았다.<sup>47)</sup> 기부금의 증가라는 면에서 알려진 것만 보더라도 요양원에 결핵 입원 환자로 있으면서 치료 경과가 좋아진 황규환이라는 사람이 요양원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면서 1938년 1월 3일에 2,000원을 기부하였고,<sup>48)</sup> 황해도 도지사였다가 충남지사로 영전한 정교원이 50원을 기부하였으며, 해주구세요양원에 있다가 완치되어 퇴원한 김홍세도 1월 3일에 100원을 기부하고 있다.<sup>49)</sup> 1940년 2월 11일

45) 海州療養院院長 賀樂(셔우드 홀), 앞의 논문, 4쪽.

46) 「海州 救世療養院 十萬圓의 法人申請」(『동아일보』, 1936년 4월 30일); 「海州救世療養院 十萬圓 法人手續-基礎確立, 施設擴張」(『조선중앙일보』, 1936년 4월 30일).

47) 「海州 救世療養院 財團法人 認可」(『毎日申報』, 1936년 9월 29일).

48) 「海州救世療養院에 金二千圓을 喜捨」(『毎日申報』, 1938년 1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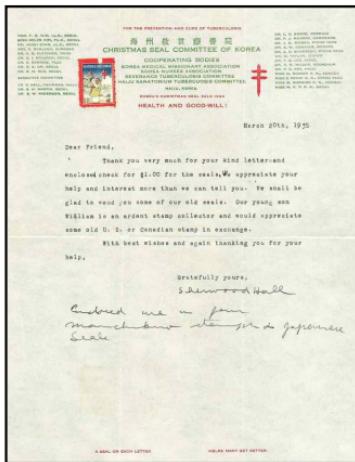
에는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추방정책이 실시되고 있던 와중에도 천황이 내탕금으로 우량사회사업단체를 지원해줄 때 해주구세요양원도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지원을 받고 있었다.<sup>50)</sup>

하지만 국내에서의 기부금보다는 홀 박사의 개인관계를 통한 외국으로부터의 기부금이 훨씬 더 많았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전술한 메리 스코트 베버그의 3,850달러와 친척들의 의료기 기증, 홀 박사의 모친 로제타 여사와 여사의 친구들이 보내준 여성전용 별채의 건축 기금(『조선회상』, 480쪽), 홀 박사의 사촌인 해롤드 무어의 교회당을 짓기 위한 1만 달러(『조선회상』, 551쪽)와 매년 1,000달러의 기부(『조선회상』, 602쪽)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홀 박사도 해주구세요양원의 명의로 해외에 크리스마스 셀 판매와 모금을 의뢰하는 편지, 이른바 ‘모금용 편지’(Fundraising letter, [자료16-1·2] 참조)<sup>51)</sup>를 1932년부터 한국에서 추방당했던 1940년까지 발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액수는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9) 「海州救世療養院에 奇附金이 還至-퇴원환자도 감격하야 기부 鄭僑源氏  
도 金一封」(『毎日申報』, 1938년 1월 11일).

50) 「優良社會事業團體에 御內帑金下賜-光榮의 半島六十九團體」(『毎日申報』,  
1940년 2월 11일). 전시 중이었던 1943년 2월 11일에도 내탕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御下賜金傳達式」, 『毎日申報』, 1943년 2월 13일).

51) 모금용 편지는 해외로부터의 기금확보를 위해 1932년부터 1940년까지 해  
주구세요양원에서 발송한 것으로 편지 내용이 인쇄된 것(타입 I), 타자 글  
씨에 홀 박사가 추가 내용을 친필로 쓴 것(타입 II), 홀 박사가 전체 내용을  
친필로 쓴 것(타입 III)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편지 내용을 통해 해주  
구세요양원의 새로운 사실들을 밝힐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  
제로 삼겠다.



[자료16-1] 1934년 모금용 편지(216mm×279mm)로 홀 박사의 친필 서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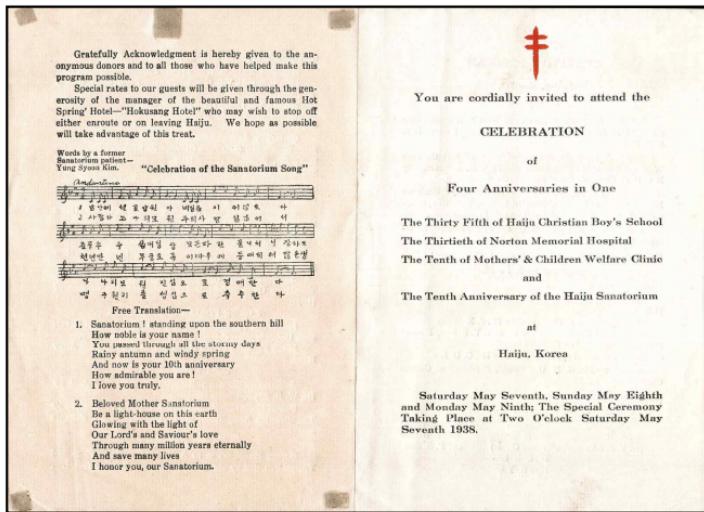
[자료16-2] 1935년 모금용 편지(214mm×277mm).

한편, 홀 박사는 해주구세요양원과 구세병원의 원장을 겸임하면서도 1931년에는 산부인과 진료원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한국에서의 선교와 의료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였는데, 1933년 9월 2일에는 수많은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로제타 교회당의 현당식과 함께 구세병원 창립 25주년, 해주구세요양원 창립 5주년 기념식을 치렀다. 또 1938년 5월 7일 오후 2시 해주구세요양원에서는 요양원 개원 10주년을 겸하여 해주기독소년학교(Haiju Christian Boy's School) 35주년, 해주구세병원(노튼기념병원) 30주년, 모자건강병원(Mothers & Children Welfare Clinic) 10주년 등 4개의 기념식을 겸한 특별행사가 성대히 열렸다. [자료17-1·2]<sup>52)</sup>는 이 때의 초대장으로 행사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열렸는데, 7일 2시부터는 홀 박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특별 강연회가 있었고, ‘해주 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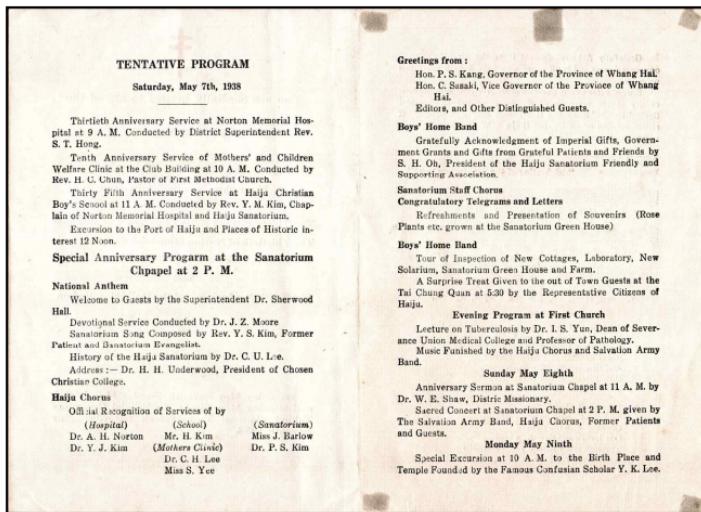
52) 「해주기독소년학교 35주년, 해주구세병원 30주년, 모자건강병원 10주년, 해주구세요양원 10주년 등 4개 기념식장으로 초대장」(274mm×199mm). 본 자료도 [자료2]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크리스마스 셀 수집가 알버트 벨라(Albert F. Balla)의 손자 제임스 벨라(James Balla)로부터 수집한 것이다.

스(Haiju Chorus)’와 해주요양원 스텝들의 합창 및 소년들의 밴드 연주(Boy’s Home Band)도 있었던 당시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뒷면 표지인 제4면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해주구세요양원의 노래가 악보와 함께 실려 있어 상당히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절만 소개하면, “남산에 선 요양원 아네 이름이 귀엽도다. 춘풍추우 십개성상 모든 파란 물리치니 장하도다. 나의 모원 진심으로 경애한다.”라는 내용이다.

아무튼 이와 같은 성대한 기념행사들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인사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주구세요양원의 운영이 반석에 올라섰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점은 결핵전문요양병원으로서 당시 해주구세요양원의 의료 성과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17-1] 「해주기독소년학교 35주년, 해주구세병원 30주년, 모자건강병원 10주년, 해주구세요양원 10주년 초대장」의 표지면(1쪽과 4쪽, 274mm×199mm).



[자료17-2] 위 초대장의 내지면(2쪽과 3쪽).

물론, 해주구세요양원의 설립 초기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 정식으로 개업한 후 3주일 간 입원환자는 단 3명뿐이었으나, 남녀구별을 없애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전국에서 입원신청이 쇄도하였다. 1928년 11월 말에는 환자들로 모든 병실이 가득 차 일광욕실, 치료실, 집무실까지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조선회상』, 463쪽). 1929년 1월에는 요양원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4명의 환자가 완치되어 퇴원했고,<sup>53)</sup> 해주구세요양원이 세워지고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1931년 5월의 『동아일보』<sup>54)</sup> 기사에는 그해 3월까지 요양원의 성과로서 총 입원자 수 124명 중에 완치 24명, 사망 2명, 기타 퇴원 98명이었다고 하여 결핵 치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海州市誌』<sup>55)</sup>에는 해주구세요양원의 입원 및 외래환

53) 자서전에는 퇴원을 ‘졸업’이라고도 명기하고 있어 ‘결핵환자 위생학교’로서의 이미지가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조선회상』, 463쪽).

54) 「一百名 收容程度로 救世療養院을 擴張」(『동아일보』, 1931년 5월 2일).

55) 海州市誌編纂委員會編, 앞의 책, 475쪽, 표 재인용.

자와 치료자가 통계표로 수록되어 있는데, 1928년부터 1933년까지 해주구세요양원에서 치료한 환자의 세부 내역을 보면 [표1]과 같다. 개원 당시인 1928년에는 입원 5명, 연인원 240명, 외래환자 102명으로 상당히 적은 수로 보이지만, 이것은 10월 28일에 개원했기 때문에 그 수가 적은 것으로 1929년부터는 환자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1932년의 경우 입원이 95명, 완치 22명, 퇴원 32명, 사망 1명, 연인원 11,120명, 외래환자 451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개원 당초부터 1933년까지 입원이 340명, 완치 67명, 퇴원 115명, 사망 14명, 연인원 31,070명, 외래환자 2,217명이라는 환자수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주구세요양원에서 결핵치료를 의탁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	입원	완치	퇴원	사망	연인원	외래환자
1928년	5	-	-	-	240	102
1929년	45	15	7	-	3,990	516
1930년	60	8	22	-	7,530	446
1931년	58	11	22	4	1,080	509
1932년	95	22	32	1	11,120	451
1933년	77	11	32	9	7,110	293
총계	340	67	115	14	31,070	2,217

[표1] 해주구세요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 통계(『海州市誌』)

또한, 결핵 환자의 치료와 요양뿐만 아니라, 예방 및 계몽활동에도 적극적이었는데, 전술한 「크리스마스 셀 宣傳文」(B)의 사각형 안에는 폐결핵 환자에게 주의사항과 함께 치료에 대한 주의사항도 홍보하고 있었다([자료18]). 이는 결핵이 불치병이 아니며, 당시 무지와 미신을 버리고 합리적인 치료와 요양으로 결핵을 완치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당시 결핵에 무지했던 한국에서 해주구세요양원이 결핵 계몽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 [자료18]

## ◎폐병 환자의 주의

- 一, 폐병 초기에 합리적 자연요법을 응용하면 완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 一, 폐병의 불치 원인은 제1, 제2기까지 放意한 까닭입니다.
- 一, 폐병자는 허망한 광고 판매약과 미신적 妄談에 신종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요양합시다.
- 一, 한 번 기회를 잊으면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 一, 온 세계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 一, 누구든지 결핵병에 걸린 자는 초기에 합리적 치료를 도모합시다.<sup>56)</sup>

이상과 같이 1928년에 설립된 이래 해주구세요양원은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한국의 결핵 치료에 많은 공적을 남기고 있었지만,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개시되었고, 일제의 입장에서도 한국에 재주하는 외국인 선교사는 일제의 대륙침략을 수행하는 데에도 방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1930년대 후반부터는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도 강도가 높아져 훌박사가 운영하는 요양원에도 위기가 닥쳐왔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에 의한 전쟁이 예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무성은 1940년 5월 15일에 “전쟁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그곳을 떠나도록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선교사들의 피신을 공지하고 있었다.<sup>57)</sup>

56) 본 자료의 3항에는 “허망한 광고 판매약과 미신적 妄談에 신종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요양합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결핵 환자에게는 다양한 미신과 妄談이 있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쌀을 사고 나서 매일 정성껏 가슴에 붙였는데도 심한 기침이 계속되자 환불을 요청하거나, 쌀이 약으로 선전되거나, 또는 쌀이 해주구세요양원의 무료 입원권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위와 같은 자료 이외에 해주구세요양원에서 발행한 수많은 홍보 인쇄물에도 결핵예방과 퇴치를 홍보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삼겠다.

57) The Korea Mission Field, *The Basis of Withdrawal*, The Korea Mission Field, March, 1941, p.34. ; 신동규, 앞의 논문, 218쪽.

이러한 분위 속에서 해주구세요양원에서 발행한 1940년의 썰 도안이 안보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홀 박사는 스파이 혐의를 받아 1940년 11월에 추방을 당했으며, 그 후에는 인도에서 결핵퇴치를 위한 의료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sup>58)</sup> 이로써 해주구세요양원을 중심으로 홀 박사가 주도했던 결핵 퇴치를 위한 치료와 예방 활동은 물론, 1932년부터 9년간 발행되어 왔던 썰도 1940년으로 중단되었다. 최종적으로 홀 박사 이후 해주구세요양원은 요양원에서 안과과장으로 있던 문창모가 원장을 이어받았으나, 일본의 패망과 함께 공산당의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문원장이 월남하면서 공산당의 수중으로 들어갔다가 폐쇄되었으며,<sup>59)</sup>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해주구세요양원의 상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 4. 맷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해주구세요양원의 설립과정부터 시설의 규모, 나아가 해주구세요양원의 운영과 발전과정, 그 성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점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국 최초의 결핵전문병원으로서 해주구세요양원의 설립에 관한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홀 박사가 17세 무렵이었던 1910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요양원의 설립을 의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혔는데(1911년 미국으로 유학), 미국 유학을 마치고 1926년에 귀국한 후의 설립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전적으로 셔우드 홀 박사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sup>60)</sup> 이는 의사인 동시에 선교임무를 포함해 사명감에 충

58) 1940년의 크리스마스 썰 도안 문제와 홀 박사의 스파이 혐의 및 재판과정과 추방에 대해서는 신동규, 앞의 논문, 209-219쪽, 참조.

59) 海州市誌編纂委員會編, 앞의 책, 477쪽.

만했던 그의 일생의 과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종적으로는 1927년 6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감리교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해주구세요양원의 건립 승인을 얻어 1928년 3월 무렵에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동년 4월 13일에는 ‘결핵환자위생학교’의 기공식을 거쳐 5월에는 해주구세요양원의 건축이 착수되었고, 공식적인 개교식 겸 개원식을 10월 28일에 개최하면서 해주구세요양원은 실질적인 결핵예방과 치료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둘째는 해주구세요양원의 상세한 시설 규모의 파악이다. 요양원은 해주부 남산의 중복에 송림이 울창한 왕십리 210번지에 건립되어 현재의 황해남도 해주시 남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1928년 3월 무렵에 건축을 시작한 아래로 본관 1동, 기숙사 5동, 입원병동(入院舍) 6개동, 예배당(로제타 교회당), 오락실, 부속농장 등이 있었다. 특히 농장의 규모는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3년 무렵에 30,600평을 구입한 상태였고, 곧이어 인접한 122,400평의 땅을 구입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확장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훌박사가 강제추방 당했던 1940년까지는 대략 15만평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당시로선 결핵환자를 위한 최신식 기구, 즉 X광선(X-ray), 인공태양등·인공기흉기·전기치료기 등을 구비하고 있어 결핵 전문요양병원으로서의 실질적 체계를 완비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는 요양원의 운영 실태를 통해 본 성과와 발전 및 조선총독부의 결핵대책과 관련된 사항이다. 본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요양원이 설립될 1928년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결핵 대책으로서의 치료와 예방 및 퇴치에 대한 정책은 그다지 뚜렷한 성과가 없었으나, 요양원이 설립되고 다양한 성과들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 제야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총독부의 보조금은 요

60) 이점은 훌 박사 스스로가 “모든 건축 과정은 나의 계획과 나만의 지시로 처리될 수 있었다.”(『조선회상』, 482쪽)라고 언급한 것으로부터도 증명된다.

양원 자체에서 조달한 모금이나 기부금보다 훨씬 미미한 액수였는데, 이를 볼 때, 총독부의 조선에 대한 결핵대책은 그야말로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대응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요양원은 본문에서 살펴본 1933년까지의 의료성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꾸준한 성과와 발전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상황은 1936년 4월 7일 조선총독부가 朝鮮結核豫防協會를 설립하여 결핵예방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거의 같은 시기인 1936년 4월 20일에는 요양원이 자본금 97,800여원과 기부금 등을 포함해 자산총액 10만원의 재단법인 신청을 하였고, 이후 9월 16일에 승인을 받으면서 요양원은 더더욱 발전하였으며, 식민지 조선에서의 결핵예방과 치료 및 대책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보면 식민지 조선에서의 결핵예방과 치료 및 대책이 실질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36년 4월부터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조선총독부의 중요한 역할이 일정 부분 있었지만, 본문에서 검토하였듯이 총독부는 이후 결핵의 치료보다는 예방과 계몽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당시 해주구 세요양원의 역할은 한국의 結核史, 나아가 醫學史에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해주구 세요양원에서 발행한 결핵예방과 퇴치와 관련된 수많은 인쇄홍보물과 자료에 대한 검토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또 크리스마스 썰의 홍보와 판매를 통한 결핵예방과 계몽 및 퇴치의 실태에 대해서도 검토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성은, 「로제타 홀의 조선여의사 양성」(『한국기독교와 역사』27,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7).
- 김정민, 「로제타 셔우드 홀의 선교사역에 대한 연구」(감리교신학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남상욱, 「셀 단상(斷想)-1935년 셀의 도안자는 누구인가?」(『보건세계』57-6, 대한결핵협회, 2010).
- 남상욱, 「셀 단상(斷想)-일제시기의 셀 디자이너 “엘리자베스 키스”의 예술세계」(『보건세계』57-1·2, 대한결핵협회, 2010).
- 남상욱, 「셀 단상(斷想)-한국 최초의 셀 이야기」(『보건세계』56-5, 대한결핵협회, 2009).
- 남상욱, 「운보 김기창 화백이 셀 디자이너?」(『보건세계』57-5, 대한결핵협회, 2010).
- 로제타 셔우드 홀/현종서 역, 『닥터 월리암 제임스 홀』(에이멘, 1994).
- 朴潤栽, 「조선총독부의 결핵 인식과 대책」(『한국근현대사연구』47, 한국근현대 사학회, 2008).
- 박정희, 『닥터 로제타 홀』(다산초당, 2015).
- 박현수, 「식민지 조선에서 결핵의 표상-나도향의 경우」(『泮橋語文研究』34, 반교어문연구회, 2013).
- 셔우드 홀/김동열 역, 『닥터 홀의 조선회상』, 좋은씨앗, 2003).
- 셔우드 홀/김원경 역, 『인도회상』(좋은씨앗, 2009).
- 신동규, 「일제침략기 선교사 셔우드 홀(Sherwood Hall)과 크리스마스 셀(Christmas Seal)을 통해 본 한일관계에 대한 고찰」(『韓日關係史研究』47, 한일관계사학회, 2013).
- 神學指南編輯部, 「朝鮮初有의 肺病治療所인 海州救世療養院을 紹介함」(『神學指南』12-1, 神學指南社, 1930).
- 이창성, 「韓國의 크리스마스 셀 夜話(1)~(9)」(『보건세계』37-6~38-2, 대한결핵

협회, 1990~ 1991).

최은경, 「개항 후 서양의학 도입과 ‘결핵’ 용어의 변천」(『醫史學』41, 大韓醫史學會, 2012).

최은경,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결핵정책(1910-1945): 소극적 규제로부터 시작된 대응과 한계」(『醫史學』45, 大韓醫史學會, 2013).

黃海道海州救世療養院白, 「肺 患者의 기쁜 소식」(『神學指南』12-1, 神學指南社, 1930).

Albert R. Zink et al, “Characterizat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DNAs from Egyptian Mummies by Spoligotyping”, *J Clin Microbiol.* 41-1, 2003.

Albert. F. Balla, *Korea India, Tuberculosis Control in Two Land*(Reprinted from “WORLD OUTLOOK”, 367), no publisher, no data.

Bruce M. Rothschild et al,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DNA from an extinct bison dated 17,000 years before the present”,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33-3, 2001.

Mary Wilton[Helen Young Snyder], *The Mother of Pyongyang* no publisher, no data(1926 이 후[?], 89mm×159mm).

Park Yun Jae, 「The work of sherwood Hall and the haiju tuberculosis sanatorium in colonial Korea」(『醫史學』45, 大韓醫史學會, 2013).

The Korea Mission Field, *The Basis of Withdrawal*, The Korea Mission Field, March, 1941.

## 참고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毎日申報』, 『조선중앙일보』, 『中外日報』.

内閣統計局, 「我國の結核死亡率と乳兒死亡率」(『週報』제16호, 『官報』제3024호 부록, 1937, 신동규 소장).

발행처 불명, 「海州救世療養院山下館 엽서」(신동규 소장).

발행처 불명, 「海州救世療養院女子館 엽서」(신동규 소장).

조선결핵예방협회/해주구세요양원, 「最近 世界 各國의 結核 死亡率」(『크리스마스 씰 발행 제4주년기념 미니 포스터』(1935, 신동규 소장).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 『朝鮮人事興信錄』(朝鮮總督府, 1935).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官報』(1926년 7월 1일).

해주구세요양원, 「1934년 크리스마스 쌀 모금용 편지」(1934, 신동규 소장).

해주구세요양원, 「1935년 크리스마스 쌀 모금용 편지」(1935, 신동규 소장).

해주구세요양원, 「本院案內書」(1934, 서동욱 소장).

해주구세요양원, 「쌀-販賣의 價格과 使用法」(1932, 남상우 소장).

해주구세요양원, 「해주기독소년학교 35주년, 해주구세병원 30주년, 모자건강 병원 10주년, 해주구세요양원 10주년 등 4개 기념식장으로 초대장」(1938, 신동규 소장).

海州市誌編纂委員會編, 『海州市誌』(海州市誌編纂委員會, 1994).

海州救世療養院出版部, 『療養村(제4집)』(海州救世療養院出版部, 1938).

海州救世療養院出版部, 『療養村(제16집)』(海州救世療養院出版部, 1940).

【日文抄錄】

日帝侵略期韓國最初の結核専門療養病院  
海州救世療養院の設立と運營實態に關する考察

申東珪

本稿は韓國最初の結核専門療養病院である海州救世療養院の設立過程と施設の規模、運營實態と成果に對して考察したもので、整理すれば以下の通りになる。

第一は、海州救世療養院の設立に關する問題である。設立構想は監理教の宣教医師である シャーウッド・ホール博士が韓國にいた1910年の17才頃から既に計畫しており、以後建築までもすべてホール博士の一人の努力によって行われた。最終的には1927年6月19日にソウルで開催された監理教宣教部の會議で海州救世療養院の設立に對する承認を得、1928年3月に建築許可をもらい、同年4月13日に「結核患者衛生學教」の起工式を経て、5月には海州救世療養院の建築を着手していた。開院式は10月28日に行っており、その後海州救世療養院は實質的な結核予防と治療活動を始めることができた。二つ目は、海州救世療養院の詳細な施設規模の把握である。療養院は海州府南山の中腹の王神理210番地に建立され、現在の黃海南道海州市南山洞に位置しているが、1928年3月頃建築を始めた以來、本館1棟・寄宿舎5棟・入院病棟(入院舎)6棟・礼拝堂(ロゼッタ教會堂)・娛樂室・附屬農場などがあった。特に農場の規模は療養院が建立されてから擴張され、1940年までは概ね15万坪以上であったと推測される。しかも當時では結核患者のための最新式の医療施設、すなわちX光線(X-ray)・人工太陽燈・

電氣治療期などを具備しており、結核専門の療養病院としての實質的な体系を完備していたと評価できる。三つ目は療養院の運営實態からみた成果と發展及び朝鮮總督府の結核對策と關わる事柄である。當時總督府の補助金は療養院自体から調達した募金や寄付金よりはるかにわずかな金額であったが、これを考えれば總督府の朝鮮における結核對策は消極的かつ間接的な對応策であったと評価できる。それでも療養院は1933年までの医療成果でも分かるように大きな成果と發展を見せており、このような状況は1936年4月7日朝鮮總督府が朝鮮結核予防協會を設立して結核予防を全國的に擴散させるきっかけにつながった。ただし、朝鮮總督府の重要な役割も一定部分あったが、本文で検討したように以後總督府は結核の治療よりは予防と啓蒙に重点をおくようになったことを念頭に置けば、當時海州救世療養院の役割は韓國の結核史、ひいては医学史に新たに刻印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Keyword】

Tuberculosis Sanatorium of Heiju, Sherwood Hall, Tuberculosis, Christmas Seals, Methodist Missionaries, History of Tuberculosis